

# 제주축산업의 현실과 발전 전략

양승주 (농학박사 · 제주도축산진흥원)

## 1. 서언

농업과 축산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과 존재할 동안에는 언제나 농축산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농축산업의 발달사라 할 수 있다.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부족, 민족, 국가 및 지역사회는 한순간 흥성하나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해버리는 많은 역사적 교훈이 있다. 농축산업과 농촌의 와해는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고 일차적으로 해당농민이 피해를 당하게 되지만, 일단 와해된 농축산업 기반조성에는 수십 수백년이 필요하며, 그 피해 역시 곧바로 국가 및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안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과거 농촌과 농업중심에서 현대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일단락 지은 선진서구사회에서, 지금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중의 하나로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산업구조 및 체제 내에 일정수준의 안정된 농축산업을 유지 보전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축으로 하는 대변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제주축산업, 제주의 축산인들은 어디에 서있고 어떤 상황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돼지전염병청정지역 선포(1999. 12. 18) 및 구지역청정지역의 국제적(OIE) 인증(2001. 5. 30.)은 제주도축산업발전을 위한 획기적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도민과 상당수 축산인들 사이에는 축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정적 시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청정지역선포에 의해 조성된 절호의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제주축산물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에 의한 당장의 소득증대에 만족하고 있을 뿐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과 경영 개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감이 있다. 제주축산의 현실에서 느끼는 이러한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고 경쟁력있는 축산업정책은 제주지역에서 충분히 가능 할 수 있고 또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어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머릿글로 언급하면서, 제주도축산업 현실을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전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제주축산업의 현실

### (1) 제주축산업의 환경적 여건

제주도는 총면적 1,826.21km<sup>2</sup>의 25%가 해발 200-500m에 분포된 완만한 경사의 중산간 초원지대로서, 65,696ha의 목야지와 112개소의 목장, 년평균기온 15 -16℃ (겨울평균 6℃ 이상), 1,576

mm의 평균강우량, 그리고 일교차가 적은 해양성기후 등 자연환경적으로는 축산업의 최적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산업고용인구중 농축산분야 인구비중이 2001년 25.3%, 지역총생산 중 농축산업 비중은 22.3%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축산업생산액(3190억원)은 1차산업생산액의 29.8%로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축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구름 많고 일조가 부족하며, 고르지 못한 강우일수, 잦은 태풍의 영향, 표토가 얇고 유효인산함량이 낮은 화산회토의 척박한 토양 등의 자연적 여건과 더불어, 농업경시 풍조의 만연, 중산간초지의 타용도 전용, 축산분뇨의 환경오염문제 대두, 관광과 휴양산업 지향의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등 축산업에 불리한 여건도 병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주의 청정환경, 섬 지역 이점을 살린 질병방역의 유리성, 청정지역 선포와 국제적 인증 획득, 일본 등 대소비지 인접으로 축산물 수출여건 유리성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정착이 어렵고 감귤편중의 1차산업 구조개편과 산업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절실한 제주지역에서, 일정수준의 안정된 축산업 정착은 매우 중요하고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2) 축종별 사육실태

● 한(육)우

제주도 소사육은 일제하에서 38,000두에 이를 만큼 주요산업의 위치에 있었으나 해방 후 감소하기 시작했고, 특히 1955년 브라만과 샤로레 도입에 의한 교잡 혼혈 시작으로 1985년에 57,000두까지 증식된 반면, 제주고유의 한우는 사라지게 되었다.

〈표 1〉 주요가축사육동향 (단위 : 두, 호)

년도	소				돼지	닭	말		
	계	한우	육우	젓소			계	제주마	경주마
1960	43,234 (23,064)	42,574	651	9	48,794 (44,165)	90,891 (28,128)	12,077 (4736)	12,077 (4,736)	-
1980	42,699 (17,720)	27,561	13,921	1,187	48,822	302,140	2,401 (1541)	2,401 (1,541)	-
1995	36,390 (3,169)	5,169 (319)	26,948 (2,717)	4,273 (133)	239,808 (381)	1,118,887 (395)	3,929 (217)	3,306 (151)	623 (66)
1998	40,341 (1,959)	14,085 (677)	21,053 (1,176)	5,203 (106)	315,616 (380)	1,229,308 (152)	5,636 (244)	4,556 (167)	1,080 (77)
2000	27,289 (1,145)	10,548 (461)	11,184 (594)	5,557 (90)	335,645 (394)	1,300,049 (232)	7,348 (298)	5,847 (216)	1,501 (82)
2001	22,660 (1,001)	9,970 (476)	7,013 (438)	5,677 (87)	358,108 (407)	1,316,710 (716)	8,610 (357)	6,306 (265)	2,304 (91)

※ ( ) ; 사육농가수

1996년 이후 쇠고기수입개방과 도체등급제 시행으로 교잡우의 경쟁력이 급감하면서 교잡우의 한우대체사업이 추진되어 한때 한우두수가 14,000두까지 이르기기도 하였으나 가격파동, 한우정책의 변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2001년 현재 한우가격은 높은 상황이면서도 사육두수는 총계 22,660두(한우 9,970두)에 불과한 어려운 상황이다. 2001년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사업이 승인되었으나 오히려 두수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 시책 또한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젓소

1960년 정부의 낙농진흥계획 수립 시행은 낙농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그러나 제주도는 1975년에 이르러 188두의 홀스타인 젓소를 호주에서 도입한 것이 낙농업 시초로서, 제주도축산시책에서 낙농업은 소외되어 왔다. 2001년 현재 낙농가호수(87호)는 전국대비 0.67%, 젓소두수(5,677두)는 1.04%에 불과한 바, 제주도의 일반지표(전국대비 인구 1.3%, 국토면적 1.8%, 도내 산업중 농업비중 25.4%)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위생적 특수성 때문에 지역내 자급이 최선인 우수소비 초차 자급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낙농산업은 농축산업 중 가장 첨단화된 분야로서 산업과급효과가 큰 장치산업이며, 제주지역의 청정고품질유제품 생산의 유리성 및 2차(공해가 작은 제조업), 3차(관광)산업과의 연계가능성이 가장 큰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낙농산업 소외경향의 제주축산시책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돈

1960년대 이전까지 농산부산물에 의한 부업양돈상태이던 제주도 양돈산업은 1960년도 이시돌목장의 외국산 개량종돼지(버크샤, 요크샤 등)수입 및 농가분양으로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으며, 연간 2000톤 규모의 대일수출까지 이루어 졌었다. 1994년에는 제주축산업경쟁력강화 대책에서 수출주력품목으로 선정되어 사육두수 24만여두에 이르는 등 집중육성되어 왔다. 그후 IMF를 계기로 다소 주춤하기도 했으나, 1999년 12월 18일 돼지전염병(콜레라, 오제스키)청정지역 선포와 2001년 5월 30일 구제역청정지역 선포 및 국제적(OIE) 인증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2001년 현재 358,000두로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생산량의 70%정도가 육지부 반출 및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청정지역선포에 의한 급격한 돈육가격상승(육지부대비 10~15%)에만 의존한 현재의 제주양돈 호황은 생산성제고와 경영개선 및 차별화된 고품질 브랜드화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 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기타가축

제주도 말사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39년경 약25,000두까지 증식되기도 했으나 사역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사육경제성이 급감하면서 1985년에는 1,541두로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이르는 상황을 맞았었다. 1985년 제주조랑말(제주마)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차원의 보호증식사업이 시작되고, 1990년 제주경마장 개장 및 1994년 경주마육성목장 개장으로

로 경주마의 국산화사업(자급도 75%목표)이 시행되면서 2001년 현재 8,610두로 상당한 증가와 발전을 가져왔다.

양계산업은 소수의 전업농에 의해(716호) 양계단지 중심으로 132만수 정도 사육되고 있으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양봉업도 1990년 이후 감소되기 시작하여 19,000군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이외에 재래가축으로 2001년 현재 재래흑돼지 4,332두(35농가), 재래닭 71,738수(71농가), 흑염소 7,009두(207농가)가 유전자원보전 및 지역특산물 개발을 목표로 사육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의 미흡과 일관된 시책의 결여 등 열악한 상황이다.

### (3) 초지 및 사료 분야의 현실

제주도는 목야면적 65,695ha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주축으로 하여 농산부산물과 일부 과잉생산지의 농산물(전분박, 유채박, 감귤박, 채소류 등)들이 조사료자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배합사료 공급은 도내 2개소의 사료공장 및 축협과 9개소의 육지부사료공장 대리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초지개발 조성 및 소유구분 현황 (단위 : ha)

구 분	총면적	비율 (%)	개발가능	조성			기타	향후조성 계 획
				개소	관리면적	비율%		
계	65,695 (100)	100	15,269 (23.2)	1,110	19,347 (29.5)	100	31,079 (47.3)	3,800 <8.2>
관 영 장	749 (100)	1.1	50 (6.7)	5	597 (79.7)	3.1	102 (13.6)	-
전 기 업 목 장	7,682 (100)	11.7	500 (6.5)	30	6,722 (87.5)	34.7	460 (6.0)	300 <31.3>
마 을 공 동	10,252 (100)	15.6	1,428 (13.9)	77	5,337 (52.1)	27.6	3,487 (34.0)	500 <10.2>
일 반 초 지	47,012 (100)	71.6	13,291 (28.8)	998	6,691 (14.2)	34.6	27,030 (57.5)	3,000 <7.4>

※ ( ) : 총면적대비 점유비율%      < > : 조성 안된 면적대비 비율%

초지조성사업 시행초기(1959년도)에는 미미한 지원과 낮은 기술수준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었으나, 1966년부터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도입을 비롯한 지원확대와 기술지도 강화 및 체계적 사업수행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목야면적 65,696ha중 2001년 현재 27,170ha(대가축 7만두 사육가능 면적)가 조성 완료되었고, 도내 관리대상초지(19,347ha)는 전국초지의 38%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고의 조성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관영 및 전기기업목장 초지는 80~88%가 조성된 반면 총초지의 72%를 차지하는 일반초지의 조성실적은 14%에 불과하며, 관리상황 상급 초지는 50%수준으로, 관리소홀 및 이용기술 미흡에 의한 불실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감자재배 확대 및 골프장과 관광시설 등 초지 전용과 잡식에 의한 초지면적 감소, 지대와 임대료의 비정상적 상승 등으로, 조사료 생산감소는 물론 토양유실 등 환경과 괴 까지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배합사료생산은 1963년 이시돌협회의 대규모 양돈사업 시작으로 PL480옥수수를 이용한 양돈배합사료 제조가 시초였고 상업적 배합사료 생산은 1987년 대영농산(주)의 배합사료 공장 설립이 시초였다. 도내 배합사료생산은 2001년 현재 총사료수요량(333,556톤/년)의 31.5%인 105,041톤을 이시돌사료공장(일산40톤)과 탐라사료공장(일산130톤)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사료 자급율이 매우 낮고 특히 도내 부존자원 이용 등 사료생산과 공급관련 시책 및 사업은 관심밖의 상황이 되어있다.

#### (4) 축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분야의 현실

##### ● 우유 및 유제품

2001년 현재 제주도 우유생산량(원유납유량)은 연간 20,300톤으로 15년전(1985년)에 비해 648% 증가된 대단한 성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 우유생산량의 0.8%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관광객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도내 상주인구 위주의 우유자급도가 겨우 59% 수준(시유자급도 76%)밖에 안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도내 우유처리시설(2개소)의 1일원유처리능력은 110톤으로(제주우유 60톤, 제주낙협 한라우유 50톤), 한라우유의 간헐적 치즈제조(1일 7톤처리)를 제외하면 시유제조에 국한되어 있어서(1일 50-70톤 처리, 가동율 45-60%), 다양한 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청정이미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우유 및 지역특산우유로서의 유통과 홍보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 ● 육류의 생산 및 유통

도내산 육류의 도내공급과 도외반출 실적을 보면, 돈육의 경우 육지부 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내공급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도내 양돈산업이 수출 및 반출지향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3월 27일의 구제역 발생과동으로 육지부의 돈가 하락 및 소비감소와

〈표 3〉 제주도 우유수급 현황 및 전망

	1985	1995	1998	2001	2005(계획)
총소비량(M/T)	11,628	24,920	28,620	32,900	39,000
(음용유소비량)	(8,637)	(18,613)	(21,750)	(26,700)	(30,800)
도내생산량(M/T)	3,005	14,139	16,252	20,330	26,800
(경산우두당Kg)	(4,005)	(5,760)	(5,880)	(7,020)	(7,500)
총자급율(%)	26	56	57	62	69
(음용유자급율)	(35)	(73)	(75)	(76)	(86)

※ 도내 생산원유중 치즈 제조물량(약20~25%)을 제외한 도내 시유공급 자급율은 2001년도 59%, 2005년(계획) 67%에 불과함.

유통혼란 상황과는 반대로 제주지역 양돈업은 대일수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반출 증가로 돈가 폭등과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급작스런 호황으로 양돈농가는 기술발전 및 경영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상승된 돈가에만 안주하고 있어서 양돈업 경쟁력은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의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쇠고기의 경우 반출물량은 증가되고 있으나 도내공급은 정체되고 있는 바, 이는 도내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의 공급물량 중에서 점차 반입쇠고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추정된다.

(표 4) 도내 소 및 돼지 생산,도축,유통 현황 (단위 : 두)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소	생산두수	16,776	13,149	14,851	?	?	?	
	도축두수	계	6,703	8,867	9,531	5,785	4,804	3,056
		이용,내수	6,703	6,228	6,291	5,785	4,804	3,056
		수출	-	(2,639)	(3,240)	-	-	-
생우반출	10,098	4,282	5,320	?	?	?		
돼지	생산두수	197,397	308,687	358,456	426,516	440,612	490,874	
	도축두수	계	168,352	257,455	289,179	368,627	440,612	490,874
		이용,내수	153,117	183,627	205,886	238,618	199,680(내수) 90,188(이용)	215,133(내수) 90,188(이용)
		수출	15,235	73,828	83,293	125,898	(150,744)	(180,479)
생돈반출	29,045	51,412	69,277	62,000	-	-		
닭	도축두수	1,905,645	2,090,160	1,975,777	2,462,969	2,339,753	2,540,257	
말	도축두수	-	45	22	25	60	110	

( ) : 1997 및 1998년 소 수출실적은 정부의 한우수매 실적임.

( < ) : 2000 및 2001년의 돼지수출실적은 외국선적수출이 아니라, 수출돈으로 도내 육가공업체가 수매한 실적임.

### (5) 가축방역과 위생

제주도축산정책에서 가축위생 및 방역분야는 상당히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탄저, 기종저, 돈콜레라, 광견병, 우결핵, 추백리 등의 기존 질병에 대한 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질병들(아까바네, 오제스키, TGE, PED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콜레라, 구제역, 광우병 파동을 겪는 상황하에서, 제주도는 청정환경의 유지와 육지부와 고립된 여건을 이용한 각종 질병 특히 전염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건강한 종축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청정축산물 생산을 이룰수 있도록 가축질병방역 및 축산물검사 시스템의 효율적 수립 운용이 절대적 사안이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28일에 돈콜레라 청정지역선포를, 그리고 2001년 5월 30일에는 구제역 청정지역선포를 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인증을 획득하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륙에서의 제주지역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고 가격을 상승시켜 제주양돈호황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 및 육지부에서의 가축, 축산물, 사람 및 차량기구 들의 반입 반출을 통한 질병유입을 철저히 차단시킬수 있는 방역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개별농가의 소득과 청결을 제대로 이행해 나감은 물론, 사양관리기술개발 및 경영개선에도 힘 기울여 나가는 일이 병행될 때에, 비로소 제주도 청정축산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제주도 축산업 발전전략 및 방향

제주축산업은 자본기술집약적이어야 한다. 기본방향은 생산성향상 및 비용절감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으로 양축경영기반을 다져 나가야하며, 수입축산물에 대비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청정화와 품질고급화 및 유통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위생 및 검역기능 강화, 축산분뇨의 합리적 이용방안 확립, 제주지역 농가와 현장에 맞는 실증시험연구와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기구의 설치와 시스템의 수립 운영,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점차 고조되는 '친환경'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특히 고품질과 고유 브랜드로 고급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분야를 적정수준까지 육성발전 안정화 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기본 전략

<b>제주의 경제와 환경을 지키는 제주형 축산업 육성 발전</b>
--------------------------------------

-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축산업 규모화 및 전업화 추진 - 제주관광산업 및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연계된 제주형 축산모델 개발
-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내 부존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화 조직화 시키는 종합산업으로 육성 정착 - 고품질 청정 및 제주 지역 특화축산물 생산과 브랜드화의 추진
- 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적극적 도의 시장개척 및 수출산업화 강력 추진
- 철저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 정착- HACCP의 조속한 추진
- 실증시험연구와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를 전담하는 조직기구 설치와 시스템 가동.
  - 전문인력 육성 및 종합컨설팅체제의 확립 - 민간 연구 및 기술지원조직 육성

<b>제주도 축산업은 생명공학(BT)의 기반을 담당하면서 정보공학(IT)과 연계된 첨단산업화의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b>
---

#### (2) 축산업 전략수립을 위한 참고사항

- 축종별로 차별화된 시책수립 필요
-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제도의 도입

- 축산관련 연구지도기관 설립 운영과 민간조직 설립 운영 지원
- 제주 중산간지역 부재지주 초지의 축산활용방안 수립 시행
- 제주에 적합한 조사료생산 및 부존사료자원 개발이용방안 수립 시행
- 제반 축산사업 및 시책의 점진적 민간주도화 및 민영화 추진
- 제주지역의 환경적 토양적 특수성을 감안한 축산분뇨 자원화방안 마련 시행
  - 처리 위주의 시책에서 자원화 이용 위주로 전환
- ※ 축산업관련 특별사업추진
  - 제주축산의 정보화산업
  - 제주재래가축(흑돈, 흑우, 제주마) 보전 및 산업자원 이용방안 확립
  - 축산체험 관광목장 조성사업
  - 사료자원 물류 기지화 사업

#### 4. 결론(제주축산의 비전)

식량산업으로서 축산업은 경제성의 높고 낮음을 따지거나 비교우위를 논할 수 없는 국가전략 산업이다. 농축산업의 비교우위를 논하는 곳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나라 뿐이라고 한다. 축산업의 폐기는 유효 부존자원의 활용을 포기하게 하며 생태계를 파괴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의 자연정화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국토의 황폐화를 초래하게 된다. 축산물은 전쟁이 아닌 평화시에도 식량무기로써 이용되고 있다. 축산업은 식량안보, 환경안보, 사회안보의 3대 안전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축산업은 1차산업도 아니고 사양산업도 아니다. 현재 선진국들의 축산업은 전문화 분업화를 거쳐 그 자체를 공업화 상업화 시장화된 1,2,3차 복합산업으로 정착되어 있다. 양축농가는 감소하면서도 축산물생산은 증대되고 있으며, 축산업관련 자재산업 식품가공 및 유통과 각종 서비스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비록 현재의 제주축산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축산인들의 변화된 새로운 인식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부단히 노력한다면, 제주의 축산은 다음과 같은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축산규모 전업화, 기술향상 및 생산시설자동화로 안정적 양축기반 구축성공.
- 무공해 청정고급축산물 생산체계확립, 안정적 고소득 수출산업으로 정착성공.
- 외부와 지리적으로 차단된 지역여건 이용한 청정종축생산기지로 각광받게 될 것임.
- 중산간지대의 잘 가꾸어진 초원에서 古蕨牧馬의 제주특유 축산관광자원이 형성.
- 축산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을 상회할 것이고, 값진 토지소유로 경제적인정과 위험분산의 복합적 효과를 갖는 선진국형 ‘부러운 축산’으로 전환.
-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유지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이 정립될 것임.
-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에 부응, 그 일부를 담당하는 기초산업분야로 정착될 것임. 